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있는 애국주의

리 정 범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애국업적이 집대성된 부강조국건설의 사상정신적무기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인민관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있습니다.》(《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단행본 9페이지)

나라와 민족은 인민과 떨어져 존재하고 발전하는것이 아니다. 나라와 민족을 발전시키는 기본담당자도 인민이며 나라와 민족발전의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도 바로 인민이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인민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간직하신 참다운 애국리념이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무엇보다먼저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숭고한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있다.

인민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역사를 전진시켜나가는 힘있는 주체이다.

인민이 있어 조국도 있다는것은 김정일애국주의에 관통되어있는 중요한 원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조국번영의 일

대 전성기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신조에는 인민을 가장 존엄있게 대하고 귀중히 여기는 열렬한 사랑과 믿음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을 모든것을 다 잘 아는 만능의 선생으로 존경하고 내세우시였다. 혁명과 건설도 인민을 위하여 필요하며 인민을 떠나서는 혁명도 있을 수 없고 나라도 있을수 없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진리였다.

모든것을 평가하는 기준을 언제나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서 찾으시고 인민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자신께서 하셔야 할 본분으로 여기시며 인민의 기쁨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부강한 사회주의 조국건설의 목적이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무엇을 하나 건설하고 창조하여도 그것이 인민들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늘 마음을 써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이라면 그것이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단호히 배격하시였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애국의 기준으로 내세우시였다.

인민을 제일로 존대하고 내세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우리 조국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락원이 펼쳐지게 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시고 그에 의거하여 조국발전의 새 역사를 펼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지의 발현이다.

조국의 발전은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이나 풍족한 자연부원과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창조와 건설의 기본담당자는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창조적능력은 그 무엇과도 대비할수 없는 거대한 위력을 발휘한다. 개인은 아무리 총명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인류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축적해놓은 지혜와 힘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체현하고있을뿐이다. 오직 인민대중만이 인류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축적해놓은 모든 사회적재부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창조적힘을 지니고있다. 비록 모든것이 부족하고 남들보다 뒤떨어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힘을 불러일으키면 세상을 놀래우는 발전속도를 창조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인민을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 력사의 전진을 주도하는 혁명력량으로 내세우시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앞에 어려운 난관이 가로놓일 때마다 언제나 인민을 찾아가시여 그들에게 투쟁과 위훈의 불씨를 안겨주시였으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구상과 작전을 펼치시여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인민의 힘, 인민의 지혜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는 우리 조국이 제국주의자들의 포위속에서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비약하는 기적을 안아왔다.

자신의 한생을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하시며 한평생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실천적모범은 애국의 가장 고귀한 귀감으로 새겨졌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다음으로 인민에 대한 열렬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이 바

라는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있다.

진정한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다.

애국적인 행동이란 곧 인민에 대한 헌신이다. 인민의 부름앞에 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애국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조국과 인민이 하나로 련결되어있는것만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는가 하는데 따라 조국에 대한 사랑의 열도가 규정되게 된다.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만이 열렬한 애국자가 될수 있다. 애국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조국과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것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조국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중요하고 보람찬 일은 없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 투쟁과정에는 난관과 시련도 있을수 있으며 희생도 동반할수 있다. 인민의 리익보다 자신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의 아픔보다 자신의 아픔을 먼저 생각한다면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없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중도반단하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는데 바로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것이 바로 조국과 인민앞에 서는 애국자의 자세이다.

위대한 장군님은 혁명생애의 전기간을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으로 불태워오신 애국의 최고화신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제일 훌

통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 하겠다고, 우리 인민들은 불편한 점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고있지만 그럴수록 자신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진다고 하시면서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부강조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고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생활향상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시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당의 기본구호로 제정해주시고 일군들이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조국땅우에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경공업기지들과 축산, 양어, 가금기지, 과일생산기지들, 강성국가의 표본거리들과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수많은 일떠선것은 인민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이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한생은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한생이였다.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시간에는 자신을 위한 휴식시간이 따로 없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몰라야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천만가지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쉬임없는 애국헌신의 장정, 빨찌산식강행군현지지도로 이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소한의 추위와 삼복철의 무더위도, 높고 험한 령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였고 명절날과 일요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야전차와 야전렬차를 집무실로 삼으시고 현지지도로 온 한해를 보내곤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땅을 주름잡고 시간을 주름잡는 《촉지법》과 《촉시법》으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번개치듯 내달리시며 온 나라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하시였다.

끼니를 번저도 좋고 얼어도 좋으며 힘들어도 좋다, 인민이 행복하고 인민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한생 뿌리가 될것이라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인생관이였다.

겉쌓인 정신육체적과로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셔야 하였지만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걱정하시며 또다시 야전렬차에 오르시여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야전복차림으로 렬차에서 순직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세상에는 인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치가가 많았지만 위대한 장군님처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며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으신 령도자는 없다.

오늘 우리 당은 김정일애국주의를 불씨로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과 념원이 그대로 담겨져있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을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가 있는 한 이 땅우에는 반드시 인민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회주의강성국가가 펼쳐지게 될것이다.